

구성주의 미디어 기호학¹⁾

— 몸과 기호: 공존과 결별의 역사 —

박 여 성*

< 차례 >

들어가기	2.3 탈실재화의 유토피아
1. 구성주의 미디어 인식론	2.4 미디어와 기억
1.1 구성주의의 기호관	3. 공존의 역사: 공간 기호학
1.2 인지체계와 미디어 체계의 공동진화	3.1 커뮤니케이션과 공간
1.3 미디어 행위도식	3.2 거리 영역
1.4 두뇌와 몸 : 언어와 비언어 ?	4. 이탈리아의 역사: 요리의 기호학적 의의
2. 매스 미디어	4.1 음식 세미오시스
2.1 미디어와 현실 구성	4.2 기억의 다중양상과 기호
2.2 미디어의 발달-현실 대체의 시발	5. 맺음말

들어가기**

오늘날 인문학자들은 학문을 과연 직업으로 추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후기 산업사회의 기술자까지도 겸해야 하는가 라는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필자는 철학²⁾과 기호학의 화두로 떠오르는 "몸"과 미디어 사이의 교호관계야말로 과학시대의 인문학이 주목해야 할 과제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통속과학 시대의 기호학적 관심은 범칙학의 보조분과였던 골상학이나 손금 처럼 대상과 기호 사이의 표상관계의 규명에 있었다.³⁾ 기형과 같은 징표가 가지는 의학적 실존에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전임강사

** 본 논문은 拙稿 "음식기호학, 요리 텍스트언어학 입문"(살과 기호, 문학과 지성사, 1997c)에 대한 김성도 교수(고려대 언어과학과)와의 토론을 통하여 쓴 후속편이다. 수 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눈 김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1) 여기에서 말하는 "구성주의"는 미술사조(러시아 구성주의)와는 무관하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성주의는 1970년대 이후 생물학, 키버네틱, 언어학 및 물리학의 시각을 통합하여 마투라나 등에 의해서 전개되어온 인식론의 줄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여성(1995, 1996a) 참조.

2) 신체와 정신(Leib und Seele)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Hastedt(1989) 참조.

3) 골상학(骨相學[Physiognomik])은 신체 형상으로부터 인격을 추론하려는 분야로서

도 불구하고, 표상된 기호와 세계를 동일시하는 것은 소박실재론(素朴實在論: naiver Realismus)⁴⁾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고는 몸의 지위를 세계와 만나서 이룬 지각을 통하여 의미를 창출하는 장(場)으로서 설파한 메를로-퐁티나 김용옥(1989)의 생태학적-화용론적 입장을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의 모든 진리는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 구현되어 있다.”(위의 책, 49), “인간의 모든 진리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만 실현된다.”(같은 책, 81) 이런 시각에서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몸과 정신의 불가분한 본원태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몸과 기호는 공존의 단계를 거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계량화된 시물레이션에 굴복하면서 외재적 세미오시스(semiosis)와 내면화된 세미오시스의 차별성이 무력화된다.

1. 구성주의 미디어 인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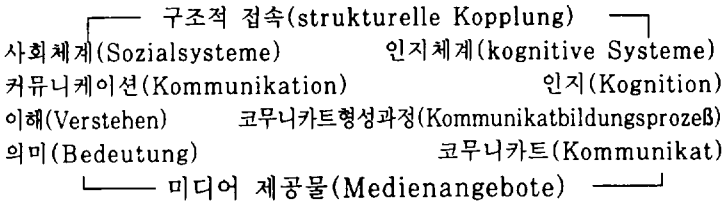
1.1 구성주의의 기호관

인지와 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 제공물(Medienangebote: 광의의 기호)을 수단으로 서로 구조적으로 접속된다. 이 과정에서 인식주체에 창발하는 과정과 결과를 코무니카트(Kommunikat)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호의 이해란, 커뮤니케이션 상대자를 향하여 화자가 할당하(려)는 정향기대이다. 이때 화자의 기대는 커뮤니케이션 상대자의 평가, 커뮤니케이션 상황 및 미디어 산출물에 토대를 두며, 그래서 텍스트 산출을 위해 생산된 발화가 화자의 코무니카트와 닮아 가는 공감영역으로 변형된다고 기대한다. 이제 그들은 언어, 담론, 장르의 표본들과의 경험을 토대로 서로 신뢰하며,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기대에 대한

20세기 심리학에 들어와서 성격학(Charakterkunde)으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계몽주의(및 낭만주의) 골상학은 인간의 외형과 성격 사이에 필연성을 상정하여 이성주의 유럽의 아이러니가 되어 버렸다. 심지어 생물학과 해부학에도 업적을 남긴 괴테 또한 형태론의 일환으로 골상학에 몰두한 바 있다. 근세의 관상 연구에 대해서는 “16·7세기 영국 관상학의 사회적 기능과 변천”(설혜심 1997), 한국역사민속학회 발표문(중앙일보 97. 10. 28) 참조.

4) 세계를 모델로 구축된 기호세계는 실재를 그대로 반영할 수도 할 필요도 없는, 인간의 필요와 의지에 따른 추형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안정오(199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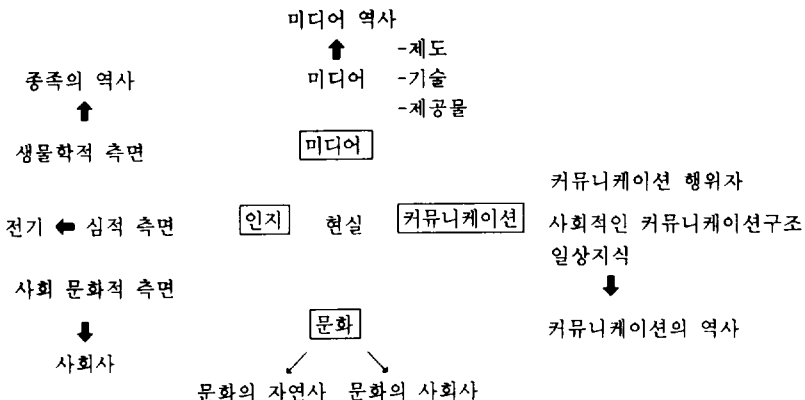
기대(Erwartungserwartung)를 통하여 공감영역을 추인한다:



1.2 인지체제와 미디어 체계의 공동진화

오늘날 사회구조, 문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문자, 인쇄,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의 미디어는 공동체 조직과 문화 프로그래밍, 커뮤니케이션 형식과 인지과정에 영향을 끼친 진화로 받아들여진다. 구전으로부터 문자로, 수고(手稿)에서 파일로의 전환을 살펴보면, 인쇄가 문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신앙과 과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무력화되어 왔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개념이 공동체의 현실모델을 구축하는 이분법에 연관된다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은 이분법을 주체화하는 형식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미디어 체계와 인지/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공동-진화(Schmidt 1994: 322)



1.3 미디어 행위도식(Medienhandlungsschemata)⁵⁾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들이 낡은 미디어를 일방적으로 축출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에 비추어 다시 정의하고 있다. 이니스와 맥루언으로 대변되는 캐나다 학파는 미디어의 질료성⁶⁾이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및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때 이니스는 접근하기 어려운 미디어들은 지배계급이 독점하지만 접근하기 쉬운 미디어들은 한 문화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는 미디어의 역사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맥루언은 미디어가 신체감관의 확장이라는 테제를 제시한다(1968: 10). 즉 새로운 미디어가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디어를 매개로 한 구조적 접속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문명에서 접속의 단절(missing link)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해체되었던 접속의 재구성을 보는 경우도 있다(大同祭의 부활이나 상형문자의 해독).

1.4 두뇌와 몸 : 언어와 비언어 ?

언어를 이성체계의 소산으로만 보는 현대 언어학에서는 여타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연구에서 배제해 왔다. 더욱이 두뇌와 몸,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에 유추하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저열한 영역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두뇌의 작동 또한 기호를 소화하는 생물학적 작동이라는 점에서 몸의 원리를 초월하는 신비한 과정이 아니다. 몸으로 구축된 세미오시스(기호세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접속수단은 기호의 대상인 동시에 작동원리인 '나'라는 살아 있는 몸이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 두뇌와 몸을 유리시킨 이성주의 언어학의 독단은 설득력을 잃는다. 맞으

5) 이에 대해서는 독일 Münster 대학의 Institut für Medien-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와 Siegen 대학의 LUMIS(Institut für Literatur- und Medienforschung)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구성주의 미디어 이론의 성과를 집대성한 K. Merten/S.J. Schmidt/S. Weischenberg의 Die Wirklichkeit der Medien(1994, Westdeutscher Verlag)을 참조.

6) 커뮤니케이션의 질료성에 대해서는 H.U. Gumbrecht & K.L. Pfeiffer(hg. 1988) Materialität der Kommunikation에 실린 기고들을 참조.

며 배우는 태권도, 손이 툭툭 붓는 연주, 발끝이 짓무르는 무용, 전경/배경을 나누며 색공(色空)을 구성하는 수묵(水墨), 눈물과 함께 배우는 시집살이 등. 커뮤니케이션의 계량적인 특성을 거부하며,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결별하는 이율배반으로 가속화되는 이러한 세미오시스는 기호학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2. 매스 미디어

2.1 미디어와 현실 구성

매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지각의 재귀순환성(Rekursivität)은 실은 의도하기(Meinen)의 재귀성과 다를 바 없다. 즉 다른 사람을 향하는 정향은 행위의 직접적인 체험이 아닌 쌍방향의 견해에 의해 이루어진다. 바로 여기에 매스 미디어의 공유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찰은 모든 미디어가 현실구성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가설의 효력을 뒷받침한다. 현실구성에 이용될 수 있는 미디어 제공물이 폭중한 결과, 특정한 미디어 산출물의 선택 자체가 이미 특정한 인지-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한 현실구성의 특성을 암시한다. 특히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영상-음향-텍스트를 통합하는 매체성과 구성능력을 탁월하게 경로화하고, 상호작용적인 지각과 정서적 연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텔레비전 세대는 낡은 미디어로 된 장면(예를 들면 '연극')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며, 네티즌은 컴맹과 다른 현실 속에 사는 것이다.

2.2 미디어의 발달-현실 대체의 시발

그로스클라우스는 파노라마에서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이르기까지 영상기술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미디어 발달과 연계되어 전개되는 지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영국에서는 1794년 이후부터, 프랑스에서는 1799년 이후부터 최초의 시각적 매스 미디어로 이용되었던 파노라마에서, 그는 그림과 관람자, 허구와 현실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단계

를 간파한다. “경계의 모호화 그리고 마치 ...와 같다(Als Ob)는 순간은 화면을 구성하는 시뮬레이션 장치의 특성을 암시한다.”(Gross-klaus 1990: 39) 파노라마에 매달려 움직이는 그림 앙상블로 인해 외부시각은 상실되며 시·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시나리오의 총체적 경험을 모의 실행한다. 이로써 다게르(Daguerre)의 은판(銀板)사진, 필름 사진, 키네마토 그래픽, 영화와 텔레비전, 비디오와 컴퓨터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험은 영상화된다. 이러한 역사는 다른 미디어들이 이룩한 결과를 집적하면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다게르-사진술에 준하는 시각은 19세기 추리소설(예를 들면 Edgar Allen Poe)에서 최대한 활용된다. 나아가 영화는 고속 및 저속 촬영과 편집을 통하여 최초로 눈의 포착능력을 초월하는 인공영상의 제조를 가능케 한다. 그림과 사진이 여전히 미메시스(Mimesis)의 착시에 고착되어 있는 반면, 기술적으로 조작된 동영상의 도입과 함께 출발-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한다.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화소(畫素: dot)와 주사선을 연결하여 개개의 영상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면서 인간의 시각능력에 적응된다. 그 결과 생리학적 한계치에 이르는 콜라주 조작으로 현실의 극한적인 시각연출을 가속화한다.

영상이 전체로서 존재하는 영화와는 달리, 텔레비전 시각은 그림-과정에만 관련되어서 동질적인 그림-단위들과는 무관하다. 물론 텔레비전에서는 전반적으로 스토리들(대부분 영화의 재탕)이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로스클라우스는 텔레비전을 “그 전자적인 구조 특성상 이야기를 조각내고 박살내는 기계”라고 규정한다: “세계의 사건은 점차적으로 인간의 두뇌에 원거리-사상적(寫像的)으로 관류하는 경향을 띤다. 즉 미룸, 주저함, 막간의 시간이나 간격이 없는 진짜-시간대로 말이다. 영상이 진짜-시간대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이야기로 된 작품화를 허용치 않는다.”(위의 책: 50).

기술적으로 제조된 영상 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의 생산과 재생산 물론 심지어 그 조건 자체까지 변화한다. 그 이유는 시청각의 총위에 있는 “세계”가 공동의 지각하기라는 허구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60년대 중반부터는, 움직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객체를 만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⁷⁾이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이

로써 미메시스 신화에 종지부가 찍히며, 컴퓨터는 어떤 준거가치도 가지지 않는 출력물을 만드는 가능성의 실현 기체가 된다: “생성된 그것은 바로 가능체라는 새로운 현실이다.”(위의 책: 57) 그 영상은 형체, 이야기, 대상의미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지만 실재(實在)의 청산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2.3 탈실재화의 유토피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엘스너, 필러 및 슈판엔베르크(1993)는 텔레비전 영상의 사용가능성, 프로그램 구조의 시간-주제상의 분절, 시사성에 대한 강조에서, 의식과 공동체 환경 사이에서 구축되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 접촉을 직시한다. 시청자들이 그들의 지식과 체험 가능성을 텔레비전의 주제 지평과 체험 가능성에 연계시키는 가운데, 조화롭고 연계능력이 있어 보이는 실재 세계의 축소가 가능해 진다. 축소된 신체 재귀지각으로 인해서 매력을 주는 영화관 공간과 달리, 온종일 방송되는 텔레비전은 시간에 구속된 한계를 무력화시키고, 라이브 효과와 진실성 연출(이른바 Reality TV)을 통해 시청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한다. 그 결과 매개적인 실체성과 인간적 상호작용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존성을 추측케 하는 세계경험의 자명한 제 2의 자연이 된다. 이때 텔레비전이 구축하는 복합적 기호형성과정(Polysemiose)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 진 현실경험을 설명하는 페르니올라는 텔레비전과 연계된 현실구성의 세 단계를 구분하였다(1983: 37 이하): 텔레비전은 제 1 기(1960년대)에서는 현실을 바꾸고 세계를 둔갑시키며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는 매체로 등장한다. 그래서 맥루언은 텔레비전에 유토피아적 기능을 할당한다. 제 2 기(1970년대)에서는 현실을 탈실재화하고 복제와 현실을 혼합하며, 참과 거짓, 복제물과 원본을 뒤섞는, 말하자면 미디어를 통해 사실을 사이버 사건으로 해체

7)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미국 국방성과 NASA의 모의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고, 비행기나 자동차의 모의운전, (만화)영화, 사이버 섹스, 의료기술... 등의 상업적 용도로 확산일로에 있다. 이에 대한 시대사적 포착은 이미 Baudrillard의 시뮬라시옹(Simulation)의 세계(Simulacrum)에 대한 진단에서 시작된다.

하는 미디어로 간주된다. 제 3 기(1980년대)에서는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탈현실화하지도 않고, 오로지 세계를 하나의 비디오적 사물로 창출하는 매체로 등장한다. 이 문갑은 다른 미디어들에도 열광적으로 차용된다. 이로써 세기말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다: “맥루언이 말하는 글로벌 빌리지, 더욱이 수 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포괄하는 집단적인 표상세계의 실존 또한 붕괴된다: 텔레비전 체험은 복수의 상이한 시간대와 장소로 분산된다[...]”(위의 책: 43)

2.4 미디어와 기억

에스만 부부(A. & J. Assmann 1990)는 개인의 체험기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의 전기(傳記)나 역사의 설계 등, 문화 공동체의 정체성 구축은 전반적으로 기억에 바탕을 둔 이야기 하기(Erzählen)를 통해서 작동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때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동질적이고 공식적인 시간대의 창출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기억과 회상이 핵심역할을 하는 통시적 영역의 지속성을 운용한다. 그렇다면 문화는 한 공동체의 상속될 수 없는 기억으로서 그것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수 세대에 걸쳐서 재생산하기 위한 기억을 필요로 한다.”(Lotman & Uspensky 1978: 10) 이때 문자(기호)가 없는 공동체는 개체의 사회성을 토대로 사회적으로 각인된 개인적인 기억역량 만을 발휘하지만, 문자(기호)를 갖춘 공동체는 미디어 제품물을 수집하고 개인적인 의미생산을 위해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문서보관소를 구축한다. 구전을 통한 전승이 三代 정도 소급하는 과거사나 신화만을 아는 반면에, 문서보관소에는 현재의 기억능력의 보정(補整)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과거 기록의 방대한 저장소가 구축된다. 물론 사회적 지식은 물리적인 저장조에 집적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 창발하는 사회조직에서만 실체화된다. 따라서 “공동체에는 기억의 저장 모델이라는 의미에서의 지식 저장소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식은 일차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지각-, 인지- 및 행위가능성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의 조직에서 [...] 실체화된다. 사건들이 그때그때 조직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의 연결을 따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공동체는 스스로를 회상한다.”(Hejl 1991: 324). 바로 그 “사회적 기억”이 미디어에 의존한다는 이유 때문에, 역사에 대한 의미구성의 증거로서의 문서보관소를 기억의 원천으로 소급할 수 없다. 문서보관소에 저장된 역사기술은 단지 역사 서술자의 행위조건과 관심 및 사회·정치적인 권력분배와 상응하는 구성조건으로만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록 스스로 말하거나 문서보관소가 회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규장각(奎章閣)은 말이 없다. 문서보관소는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회상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회상의 실마리를 이용하려는 동기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문서에는 코뮤니카트가 할당되어야 한다. 21 세기가 되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던 일본제국의 신민(臣民)들이 거의 죽게 될텐데, 누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회상 단서를 이용하여 대동아(大東亞) 전쟁을 조명할 것인가, 즉 의미산출을 위해 문서보관소가 보존하고 있는 단서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독도와 정신대(貞身隊), 징용 등의 사안을 두고 끊임없이 코뮤니카트 전쟁을 벌일 것이다.

3. 공존의 역사: 공간 기호학

기호의 화용론적 위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근접공간 기호학(Proxemics)의 문제를 보도록 하자.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실존양식인 공간이 기호학적 주제로서 당연한 몫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3.1 커뮤니케이션과 공간

기호학과 인류학을 넘나드는 독보적인 영역을 정립한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E.T. Hall, 1966)은 근접공간 기호학을 문화의 각별한 확장으로서의 공간의 사용에 대한 관찰 및 이론으로 정의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화자들이 유지하는 거리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를테면 발화자 간의 거리는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발화자들은 그들 사이의 거리를 묵시적인 동의로 평가해서 그 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불편을 느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거리로 조정하려고 한다. 이때

유사한 발화상황이라 하더라도 각 문화마다 거리가 다를 수 있다. 서구에서는 상대방의 체온이나 체취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반면, 아랍권에서는 그런 거리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적이다. 공간 안에서 사람들끼리 취하는 거리는 서로를 융화(sociope-tal) 시키기도 하지만, 상이한 집단이 공간을 구조화하고 사용한 결과 나타나는 상이한 행태가 해당하는 공동체를 벗어나면 서로를 결별(sociofugal)시키기도 한다.

3.2 거리 영역

홀은 근접공간 기호학을 구상하면서 게르만 문화권에서 로마 문화권으로 진행되는 네 가지 문화 유형을 대별하며 그 안에서 각각 밀접 단계와 원격 단계를 세분한다:

(1) 내밀한 거리(0-18인치)

- (a) 밀접(0-6인치): 격려나 신뢰 또는 사랑을 나누는 거리로,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다.
- (b) 원격(7-18인치): 머리카락이나 손가락, 골반(엉덩이)의 접촉은 없고 손을 뻗어서 사지를 잡을 수 있다(청소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경우)

(2) 개인적인 거리(18-48인치)

- (a) 밀접(18-30인치): 유기체가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는 방어적인 공간이다.
- (b) 원격(31-48인치): 팔 길이 정도의 거리이다.

(3) 사회적인 거리(4-12피트)

- (a) 밀접(4-7피트):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 또는 통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취해지는 거리이다. 일상적인 음성으로 하는 대화는 이 거리를 유지한다.
- (b) 원격(7-12피트): 좀 더 공식적인 비즈니스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취해지는 거리이다. 사회적인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그 담론은 더욱 공식적인(formal) 성격을 띤다.

(4) 공적인 거리(12피트 이상)

- (a) 밀접(12-25피트): 공공생활에서의 거리로서 통상 공속성(共屬性)의 외부영역이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음성이 커지기 시작한다.
- (b) 원격(그 이상): 중요한 공공의 인물 주위에 설정되는 거품 장치이다. 이 단계에서는 섬세한 억양과 표정 및 동작이 상실되기 때문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열악해 지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과장되거나 더 정확한 조음이 요구된다.

이 메커니즘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 안에서서의 거리는 개활 공간에서보다는 가깝고 군중들 사이에서보다는 멀다. 음성의 변화 또한 설정된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거실 같은 곳보다는 오히려 길거리에서의 대화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대화상의 거리는 물리적 공간 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대화의 주제에 따라서도 거리가 변할 수 있으며 아는 사람을 만날 때 더 가까워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⁸⁾

4. 이탈리아의 역사: 요리의 기호학적 의의

필자(1997c)는 음식 세미오시스가 몸에서 이탈하는 수순을 밝아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⁹⁾ 그런 현상은 요리 뿐만 아니라 탈주체화를 향하여 질주하는 대량생산 시대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진다.

4.1 음식 세미오시스

개인과 집안의 세미오시스인 동시에 해당 공동체의 기호세계를 분절하는 음식의 공체계 및 통체계를 살펴보자. 우리의 음식은 크게 보아 처음부터 양념하여 조리한 다음 한꺼번에(syntagmatisch) 먹지만, 서양은 기본재료(삶은 고기)에 다양한 소스를 나중에 끼얹는 조립식(paradigmatisch)이다. 한 상에 차려 동시에 먹는(synchronisch) 잔칫상과 차례에 따라 제공된 음식을 시간의 축을 따라 가면서 먹는(diachronisch) 음식문화의 대립구조도 볼 수 있다. 물론 뷔페나 격식을 따지지 않는 일상에서는 -찌개/아인토프¹⁰⁾처럼- 뒤섞이며(pan-

8) 이러한 현상은 화자와 담화의 지시대상인 세계와의 거리를 언어적으로 표상하는 것을 연구하는 빌러를 위시로 출발한 직시어(Deiktika) 연구(Bühler 1934, Herbermann 1988)에서도 다루어 진다.

9) 이에 대해서는 문화현상으로서의 요리를 기호학적 대상으로 구상하는 구조주의 불후의 대작 Lévi-Strauss의 Mythologiques(1964)를 참조하라.

10) Eintopf는 <한 냄비>라는 뜻인데, 한 주일 동안 요리를 만들다 남은 재료를 다 넣은 이를테면 독일식 꿀꿀이죽이다. 따라서 들어가야 될 재료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대충 다 들어간다. 다만 반찬이 아니라는 점이 찌개와 다르다. 즉 반찬(배경)과 주식(전경)의 중화이다.

tagmatisch) 중화된다.

홍성유 선생의 식도락은 지역(syntopisch/ diatopisch-경상도/전라도) 뿐만 아니라, 계층(synstratisch: diastratisch과 기능(양식/문체)적 특성(symphasisch/diaphasisch : 손님상/끼니 때우기, 제사/생일, 반찬/안주)을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우리는 예를 들면 함경도의 겨울철 음식인 가자미 식혜[食醢], 양배추 김치를 곁들인 돼지족발(Eisbein mit Sauerkraut)¹¹⁾ 처럼 구체적인 공시태를 선택한다: .

4.2 기억의 다중양상과 기호

화란 네이메헨(Nijmegen) 소재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심리언어학 연구소장인 영엘캄프(1990)는 다중양상 기억이론이라는 통합적인 심리언어학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음향은 단기 기억(STM: short time memory)에, 의미는 장기기억(LTM: long time memory)에 전형적인 기억체로 구상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장기적으로 기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지속시간은 판별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기억은 두뇌의 특정한 장소에 시간적으로 저장된 실체가 아니라, 특정 정보가 작동하는 활성상태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개별언어 마다 상이하게 구조화된 기억양상 특유의 표지, 프로그램¹²⁾ 및 개념에 따라서 구성된 집단지식은 이질적인(비)언어적 조건 때문에 상이한 언어공동체 구성원 간의 이해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4.2.1 영상표지

감관을 통해 기호화되는 지식은 영상, 소음 및 미각표지라는 변별특

11) 김치와 동일한 발효과정(소금+호기성)을 거치는 Sauerkraut가 있는가 하면, 포도주로부터 얻은 식초를 이용한 것이 있다. 전자는 발효인 반면, 후자는 식초에 절이는 과정이다. 김치와, 식초를 넣은 겔절이의 차이라고나 할까.

12) 프로그램이란 넓은 의미에서 Frame(행위틀)또는 Schema(인지도식)로 보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N.A. Stillings의(1995) Cognitive Science, MIT Press 참조.

징을 통해 활성화된다. 광야를 헤매던 예수의 생존수단인 들꿀과 양봉꿀, 힌두교의 소고기, 이슬람의 돼지고기, 원앙과 복경 오리 같은 정적인 영상표지(문화소)들은 각 문화의 가치체계에 따라 식품이나 금기대상으로 구별된다. 이를 통해 질료적으로는 동일한 개, 말, 개구리, 달팽이, 곤충(개미, 번데기, 메뚜기), 고양이, 양, 돼지, 소, 비둘기, 지렁이, 굼벵이, 녹용, 응답이라 하더라도 상이한 가치가 할당된다.

즉 문화소로의 귀속과정에서 대상이나 기호 자체보다는 체계에서 할당되는 변별적 가치(valeur)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구별짓기는 언어체계의 의미론적 질서를 바탕으로, 문화 고유의 이분법적 평가와 결합되어 공동체 의미론을 구축한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추한, 전형적인/낯선, 신성한/세속적인, 사치/검소, 비싼/싼, 아날로그한/디지털한, 삶/죽음, 정중한/무례한, 길조/흉조, 이성/감성, 외부세계/내부세계 등.

이것은 다른 분야의 문화소의 분절에도 개입한다: 금발(Arian의 전형/이탈리아의 창녀), 개(독일의 애완견/이탈리아에서는 천대의 대상), 까치(상서로운 길조/약삭빠른 도둑까치), 용(재수 없는 악의 사신/상서로운 상징<호랑이, 사슴, 돼지, 뱀, 독수리 등의 결합>), 빨랫줄에 걸린 아기의 내의와 앞뜰에 흰(은)색 장미를 장식한 집(상앗집/신혼집).¹³⁾ 이러한 문화소들은 부분적으로 중첩될 뿐이며 호환이 불가능하다: 쿠키¹⁴⁾(Kuchen: 과자?, 떡?, 파이?), 김치(Sauerkraut?), 국(물)(Brühe, Suppe, Boullion), 찌개(Eintopf?).

13) 문화테러를 자행하는 브리짓트 바르도와 보신탕의 문화적 가치를 역설한 제임스 레이니 전 미국대사의 퇴임사는 대조를 이룬다. 한편 음악해설자들은 하고 많은 까치 중에 왜 도둑까치 서곡(Rossini 작곡)인지 어쩔쩔 넘어간다. 그 까치는 도둑질을 하는 특정한 까치가 아니라, 서구의 공동체 의미론에서 까치에 할당된 자명한 변별특징이다. 위에서 보기를 든 빨랫줄은 우연히 서유럽과 한국의 - 삶과 죽음 사이의- 양극대립을 보여준다. 서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축복을 기원하면서, 신혼집의 빨랫줄에 아이 속옷을 걸어 놓거나, 지붕 밑에 인형이나 유모차를 걸쳐놓는다. 경우에 따라 흰/은색 장미(조화)로 화단을 장식한다. 이 경우 전제지식이 없는 사람은 삶과 죽음의 이분법을 정반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Park(1996a) 참조.

14) 쿠키를 <과자>로 번역한다면, 그것은 오류이다. 서양에서 떡의 위치를 규정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쿠키는 빵도 과자도 케이크도 아닌, 우리말의 낱말발음에 위치가치가 할당되지 않은 빈틈(case vide)이다.

4.2.2 동작역학

조리의 동작을 나타내는 채치다(schnetzeln), 썰다(schneiden), 자르다(schneiden), 깎다(schälen), 깎둑 썰다(?), 저미다(?), 뜨다(?), 찢다(reißen?), 절이다/재(우)다(marinieren?), 짜다(?), 무치다/버무리다(mischen?), 치대다(kneten?), 갈다(reiben?), 으깨다(stampfen?), 데치다(blanchieren?) 같은 어휘들은 언어들 사이에서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조리행위의 물리적인 계량성과 부정확성을 비교해 보면 그 괴리는 더욱 커진다. 약한/몽근한 불에, 기름이 끓는 온도, 잘게 썰다, 얼큰하게 양념하여, 어슷어슷 썰다, 넓게 저미고, 송송 썰어서, 물을 자작하게, 맛깔스럽게/색스럽게 담아서, 자박자박하게 졸 때까지, 고기를 양념에 푹 재워서, 갖은 양념으로 같이: 부사-동사나 형용사-명사 사이의 어휘소 연대나: 서너 개, 한 줌, 한 소끔, 한 움큼, 한 소쿠리, 한 뒷박 같은 재료의 계량(수량, 무게, 길이)에서 두드러진다. 그래서 그레마스(1983)는 피스투 스프(La soupe au Pistou)를 설명하는 텍스트에서 "(야채와 곡류의 껍질을) 벗긴다"는 의미를 계량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휘소 연대(語彙素 連帶)¹⁵⁾라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 haricots(강낭콩)-écosser, pommes de terre(감자)-eplucher, carotte(당근)-gratter, poireaux(파)-prener, tomates (토마토)-peler.

먹거리 문화는 대량 생산품의 문화라기 보다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생명체의 문화였으며, <음식 맛이 손맛>이라는 속담이 반증하듯이 맛도 이성적인 판단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정확히 계량하여 만든 포장김치나 キムチ보다는, 때 낀 손으로 투박하게 썰어 양념을 넣은 어머니의 김치가 그리운 것이다. Pizza Hut에서 국화빵 처럼 쏟아지는 Sea-food Pizza 보다 La torre¹⁶⁾ 주방장의 Pizza Frutti di mare의 맛을 잊을 수 없는 것도 매한가지 이유이다. 벤야민은 이와

15) 어휘소 연대(lexikalische Solidaritäten)에 관해서는 러발(1998)을 참조.

16) 필자가 수학하던 독일 Münster 시내에 있는 피자집 이름이다. 피사의 사탑(La torre)이 그려진 입구로 들어서면 카타콤베처럼 우중충하며, 익살스런 이태리어와 걸쭉한 독일어 그리고 피자 오븐의 열기가 다가오는 아우라 공간 그 자체가 펼쳐진다. 주방장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맛도 맛이라니와, 적당히 때가 낀 앞치마가 군내나는 김치를 생각나게 한다.

같이 반복될 수 없는, 존재하는 그 순간 사라지는 일회적인 순간의 무엇을 Aura라는 비의적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다.¹⁷⁾ 요리 세미오시스에서는 공동체의 가치변화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공동체 의미론에서 확립된 기저 이분법까지 초토화된다. 요리기호에 배어 있던 아우라는 산업사회의 대량생산양식과 맞물리면서 기억의 담지체인 몸을 이탈하여 미디어로 진출한다. 요리는 아날로그하고 항상적(恒常的)인 감성으로부터, 매물차고 빈틈없는 디지털 이성의 세계로 침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공간인 재래식 부엌은 현대식 토탈 키친 시스템으로, 식사 공간은 연료보급창으로 전락한다. 몸에 의한 기억이 텍스트(와 각종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기억으로 바뀌는 가운데 대량복제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획일화인 동시에 아날로그한 세미오시스로부터의 결별이다.

아우라는 뿐만 아니라 연주, 특히 표절이 불가능한 항상성의 영역으로서의 류(流: 김죽과, 함동정월, 최승희, 마르소, 채플린, 니진스키)에서 뚜렷히 관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명인은 불안정한 몸을 접속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완전한 아우라의 진술한 실행자이다. 몸의 비유를 통해서 표현되는 “고이 접어 나빌레라”(조지훈-「僧舞」)와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김소월-「진달래 꽃」)에 투영된 동작의 미학은 밟는 듯 미끄러지고 접으면서 휘날리는 계량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율배반의 몸 동작이다. 무도(武道)의 품세 또한 기보(記譜)로만 전수되는 것이 아니다. 교본을 외운다고 검은 띠가 둘러질 리 없다. 일회적인 순간은 몸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반복해야만 공동체의 기억구조로 정착된다. 이때 실행되는 개개인의 공연은 어느 것도 동일하지 않지만, 그 어느 것도 일정한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항상성을 유지한다.

17) 아우라를 설명한 Benjamin(1983, 반성완 역)의 〈산딸기 오물렛트〉의 서사 구조는 〈도루묵〉 이야기와 똑같다. 임금은 남한산성 피난시절에 맛있게 먹었던 묵이라는 생선에 이름을 하사하고 그것을 진상했던 농부에게 벼슬을 주고 물고기에게 귀한 이름을 지어주려고 전쟁이 끝난 후 농부를 부른다. 하지만 전쟁 속의 배고픔과 절박함이라는 아우라가 사라진 상황에서 묵을 다시 맛본 임금은 너무도 맛이 없어서 〈여봐라, 다시 도루-묵이라고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5. 맺음말

본원적인 미디어로서의 몸은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어떤 미디어 행위도식을 창출하였는가, 기호들 사이의 복제현상이 몸에 개입하는 양상은 어떠한가, 계량적인 디지털 기호로 인하여 몸 세미오시스는 어떻게 해체되어 가는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의 실효성은 어떠한가 등을 살펴봄으로써 몸의 기호학은 구체적인 연구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하면 정보 물신주의에 휩쓸린 일본의 오다쿠¹⁸⁾는 규명해 볼만한 연구 주제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도래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개체의 병리현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사이버 미래 사회의 숙명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가? 문제는 그러한 현상이 집단적으로 실행 되면 해당 집단은 그것을 더 이상 병리현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바로 그 '병리현상'이 그들의 소중한 현실을 구성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율배반의 맹점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성도(1995 번역) 현대 기호학의 흐름(H. Parret 논문 번역): 이론과 실천.
 _____(1997 번역) 의미에 관하여(그레마스 논문집 번역), 인간사랑.
 _____(1998a) 현대 기호학 강의, 민음사.
 김용옥(1989)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김용호(1997) 몸으로 생각한다: 민음사.
 김치수 외(1998) 현대 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반성완(1983 번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8) 오다쿠(お宅)는 원래 상대방의 집을 높여서 일컫는 말이었지만, 2차 대전 후에는 몸이 아파 집에 틀어 박혀 지내는 외톨이를 이르는 의미로 전성되었다. 오늘날에는 학벌 위주의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부류들이 폐쇄적 행태를 고집하며, 생계를 위한 돈벌이 외에는 집에만 틀어 박혀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편집광 무리를 비꼬는 의미로 재차 전성되었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은 전쟁(게임 및 각종 프라스틱 무기 모형) 오다쿠, 컴퓨터 오다쿠, 만화주인공(의 외상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오다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양을 만들려는) 자동차 개조 오다쿠 처럼, 현실과 가상 사이의 구분을 뛰어 넘어 그들만의 공간을 구축하는 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 박여성(1995 번역) 구성주의(S. J. Schmidt(1987)의 한국어판): 까치.
- _____(1996a) 미디어 인식론: 인지-텍스트-커뮤니케이션(S. J. Schmidt [1994]의 한국어판): 까치.
- _____(1996b) "텍스트성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 독일어의 실용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 텍스트언어학회.
- _____(1996c) "사고와 말하기"(Feilke/Schmidt, 1995의 번역), 텍스트언어학 3.
- _____(1997b) "텍스트종류 '서평'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4.
- _____(1997c) "음식기호학. 요리 텍스트언어학 입문", 한국기호학회지 3집 (삶과 기호): 문학과 지성사.
- _____(1997d) "구성주의 번역이론(텍스트언어학과 화행론): 번역이론의 새로운 과제에 대하여." 언어정보 1집,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 _____(1998 번역) 괴델, 에셔, 바흐: 영롱한 금빛 반지교리 1-2권(D.R. Hofstadter[1979]의 Gödel, Escher, Bach: An Eternal Golden Braid의 한국어판), 까치(근간).
- 안정오(1998 번역) 훔볼트의 상상력과 언어(J. Trabant의 Traditionen Humboldts(1990)의 한국어판), 인간사랑. 기호학 총서 6..
- 이정우(1993 번역) 담론의 질서(M. Foucault, 1971의 L'ordre du discours의 한국어판): 새길.
- _____(1997) 가로지르기: 민음사.
- 허 발(1998 번역) 현대 의미론의 이해(E. Coseriu 논문집), 국학자료원.
- Asher, R. E. et ali.(1995) The Encyclopedia of Languages and linguistics. New York: Pergamon.
- Assmann, A. & J.(1990) "Das Gestern im Heute", in: Funkkolleg Medien und Kommunikation. Konstruktion von Wirklichkeit. Weinheim Beltz, 41-82.
- Bühler, K.(1934/1972) Die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Stuttgart: Gustav Fischer.
- Elsner, M., Th. Müller & P. Spangenberg(1993)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Dispositives im Fernseh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r fünfziger Jahre. K. Hickethier(hg.), Institution, Technik und Programm: München, 31- 66.
- Engelkamp, J.(1990) Das menschliche Gedächtnis. Göttingen:Verlag für Psychologie.
- Feilke, H./Schmidt, S. J.(1995) "Denken und Sprechen." in: J. Trabant(1995) Sprache denken. Positionen aktueller Sprachphilosophie. Fischer, F.a.M.
- Greimas, A. J.(1983) "La soupe au pistou ou la construction d'un objet de valeur.", in: Du sens II, Essais sémiotique, 157-168.

- Grossklaus, G.(1990) "Das technische Bild der Wirklichkeit", in: Fridericiana. Zft. d. Uni. Karlsruhe, 39-57.
- Hall, E. T.(1966/1981)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Anchor Books.
- Hastedt, H.(1989) Das Leib-Seele-Problem. Zwischen Naturwissenschaft des Geistes und kultureller Eindimensionalität. F.a.M.: Suhrkamp.
- Hejl, P.(1991) "Wie Gesellschaft Erfahrungen machen oder Was Gesellschaftstheorie zum Verständnis des Gedächtnisproblems beitragen kann", in: Schmidt, S. J.(hg.) Gedächtnisforschungen. F.a.M. Suhrkamp.
- Herbermann, C.- P.(1988) Modi referentiae. Heidelberg: Julius Groos.
- Lévi-Strauss, C.(1964) Mythologiques(독일어판 1976, E. Moldenhauer) Mythologica I-IV. stw 167-170. Suhrkamp, F.a.M.
- Lotman, J. & Uspensky, B.(1978) "On the semiotic mechanism of culture", in: New Literary History 9, 1978, 211-231.
- McLuhan, H. M.(1968) Die magischen Kanäle. Düsseldorf: Econ.
- Park, Yo-song(1994) Übersetzung als interlinguale und interkulturelle Neukonstruktion. Eine textlinguistische Analyse der assertiven Textsorten im Deutschen und im Koreanischen. LIT. Münster/Hamburg.
- _____ (1996a) "Probleme der Natur und Kultur in einer konstruktivistischen Übersetzungstheorie. Ein Gesprächsangebot für Sprach- und Literaturwissenschaftler." Das 4. Sorak Symposium (Gesellschaft für Koreanische Germanistik).
- _____ (1996b) "Für eine konstruktivistische Übersetzungstheorie", in: P. Kunsmann(hg.) Linguistische Akzente 93, 30-61. Dr. Kovac. Hamburg.
- Perniola, M.(1983) Fernsehästhetiken. in: H. Pross(hg.) Rituale der Massenkommunikation. Berlin: Guttandin und Hoppe, 37-49.
- Schmidt, S. J.(1987 hg.) 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F.a.M. (stw 636, 한국어판 참조)
- _____ (1992) "Medien, Kultur: Medienkultur. Ein konstruktivistisches Gesprächsangebot". In: Kognition und Gesellschaft(hg. S. J. Schmidt) F.a.M.: Suhrkamp.
- _____ (1994) Kognitive Autonomie und soziale Orientierung. F.a.M. : Suhrkamp(stw 1128, 한국어판 참조).